

# 나카노 니노

최근 수정 시각: 2025-03-23 11:17:38

분류: [나카노 자매](#)

## 5등분의 신부

나카노 자매 (中野姉妹)

				
中野 一花 나카노 이치카	中野 二乃 나카노 니노	中野 三玖 나카노 미쿠	中野 四葉 나카노 요츠바	中野 五月 나카노 이츠키

### 나카노 니노

なかの にの  
中野 二乃 | Nino Nakano

목차

- 1. 개요
- 2. 특징
  - 2.1. 성격
  - 2.2. 요리 실력
- 3. 인간 관계
  - 3.1. 우에스기 후타로
- 4. 작중 행적
- 5. 성적
- 6. 어록
- 7. 비판
  - 7.1. 수면제
  - 7.2. 7개의 작별 에피소드
- 8. 인기
- 9. 캐릭터송
- 10. 기타



5등분의 신부 ♪ TVA ▼

출생	2000년 5월 5일 (17세) <sup>[1]</sup>
신체	164cm, A형
가족	아버지 <a href="#">나카노 마루오</a> , 어머니 <a href="#">나카노 레나</a> <sup>+</sup> 쌍둥이 언니 <a href="#">나카노 이치카</a> 쌍둥이 여동생 <a href="#">나카노 미쿠</a> 쌍둥이 여동생 <a href="#">나카노 요츠바</a> 쌍둥이 여동생 <a href="#">나카노 이츠키</a> [ 스포일러 ]
학력	아사히야마 고등학교 (5반) <sup>[2]</sup>
1인칭	<sup>わたし</sup> <a href="#">私</a> (와타시) <sup>[3]</sup>
성우	<span><span><span>🇯🇵</span></span></span> <a href="#">타케타츠 아야나</a> <sup>[4]</sup>
	<span><span><span>🇺🇸</span></span></span> <a href="#">질 해리스</a>

실사화 배우	이시즈카 타마키, 시미즈 리오
정보 더 보기 [ 펼치기 · 접기 ]	

# 1. 개요

《5등분의 신부》의 **메인 히로인** 중 하나.

나카노 가(家) 다섯 쌍둥이의 **차녀**. 숫자 '二' + 인명 용 한자인 '乃' 로 '二乃'가 된다. 후타로가 생각한 첫인상은 '정의감 넘치는 척하는 녀석'. 상징색은 **오륜기**의 **검은색**.<sup>[5]</sup>

# 2. 특징

아가씨 말투를 사용하며,<sup>[6]</sup> 다른 쌍둥이들과 달리 패션에 많은 신경을 쓰고 다채로운 옷을 즐겨 입는 **가루** 소녀. 하지만 집 안에서는 그냥 학교 체육복을 입기도 한다. 일반적인 여학생이 가장 잘 어울리는 다섯 쌍둥이. 여자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요리나 자매들 챙기는 것도 특기.

지각할 뻔했을 때도 혼자만 생일에 신경쓰며 달려가며, 등교하던 도중에 화장품을 두고온 것을 후회하였다.

남자 취향에서도 외모를 최우선으로 따지는 편으로, 미쿠는 대놓고 니노를 **멘쿠이**(面食い)라고 불렀고 미쿠가 후타로랑 친한 모습을 보이자 그런 변변치 않은 얼굴이 취향이냐면서 비웃었다.아에 대한 미쿠의 대답도 니노는 외모를 되게 따져나까. 후타로:너도 참 알짱없다. 6학년 때의 후타로 사진을 보고 관심을 보이거나 금발 가발을 쓴 지금의 후타로에게도 호의를 보여 불량한 남자 스타일을 선호하는 듯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량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동화 속 **백마 탄 왕자님**같이 자신을 구해주는 거칠 것 없는 미남이 이상형인 듯하다.<sup>[7]</sup>

다섯 자매 중 하얀색 **사이 하이 삭스**를 신고, 어두운 보라색 가디건을 입는다. 초반 긴 머리에 검은색 나비 리본을 묶는데, 이게 양갈래라 리본이 두 개 묶여있다. 마치 **청띠제비나비**의 날개무늬를 연상시키는 민트색 무늬가 특징. 나중에 단발로 자르고 나서도 계속 리본을 묶는데, 헤어스타일에 대해 전보다 더 좋아하는 독자들도, ⇄ **아쉬워하는 독자들도** 있었다.

자매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sup>[8]</sup> 시력이 엄청나게 낮아 평소엔 **렌즈**를 끼는데, 렌즈 없이는 눈앞의 후타로를 미쿠로 착각할 정도로 시력이 매우 나쁘다.

극장판 콘서트 장면에서 Love Vacation을 불렀다. 덕분에 다른 자매들과 달리 혼자서만 캐릭터송이 3개인 셈이 되었다.

## 2.1. 성격

다섯 명 중 가장 드센 성격. 후타로와도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티격태격거리는 경우가 많다. **말투도 거칠고 태도도 차가운 편이지만 정이 굉장히 많은 성격**으로 특히 자매애가 깊다.<sup>[9]</sup> 가장 심성이 여린 미쿠와 막내인 이츠키를 특히 신경을 쓰는 묘사가 많다.<sup>[10][11]</sup>

의외로 가장 속은 여린지 울먹이는 **겍모에**가 유난히 자주 나온다. 5화에서 목욕하고 나온 뒤 후타로에게 덮쳐졌을 때, 6화에서 이치카가 예전에는 다섯 자매가 사이가 좋았다 했을 때, 10화에서 14화에서 본인의 학생 수첩을 가지러온 후타로가 잠든 니노의 방에 들이닥쳤을 때<sup>[12]</sup>, 21화에서 후타로의 얼굴에 뜨거운 죽을 얹었을 때 울먹거린다. 이치카도 '니노와 친하게 지내려면 지지 않을만큼 세게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걸 보면 강한 척하는 **외강내유형** 성격인듯.

~よ, ~わ, ~の의 어미를 항상 사용하는 약간 아가씨같은 반말을 사용한다. **여자는 언제까지나 소녀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며 아직도 성의 무도회와 백마탄 왕자님을 꿈꾼다** 할 만큼 살짝 순정 필터가 켜 있다.<sup>[13]</sup>

평상시에는 굉장히 사교적인 성격이다. 전학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사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장면이 나온다. 자매 중에서도 사실상 행동대장에 가깝고, 요츠바도 니노는 불임성이 좋아 친구가 많다고 했다.

## 2.2. 요리 실력

요리 실력도 일품이어서 집안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처음에는 5명에서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하려 했지만, **이치카**는 늦잠을 자고, **미쿠**는 **요리를 못하고**, **요츠바**는 **5인분을 계산 못하고**, **이츠키**는 **요리를 하면서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탓에 음식이 남지 않아서 니노가 100% 책임지고 있다. 미쿠와 요리 대결을 했을 때의 실력차는 처참한 정도지만 후타로의 미각이 워낙 둔한 관계로 양쪽 다 맛있다고 평가했다.<sup>[14]</sup> 이치카가 장녀로서 뒤에 물려나 동생들의 관계를 조율한다면, 니노는 차녀로서 실질적으로 자매들의 생활을 돌보는 가정적인 면모가 보인다.

요리는 단순히 특기가 아니라 취미이기도 하며 나중에는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라고 한다.<sup>[스포주의]</sup>

## 3. 인간 관계

- 나카노 이치카** : 쌍둥이의 맏언니이자, 연장자 콤플렉스만큼 큰 다툼없이 서로 존중해주는 사이. 흑화하기 시작한 이치카에게 멘탈면에서 유일하게 압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니노이며 이치카가 미쿠 다음으로 크게 경계하고 있는 연적이기도 하다.
- 나카노 미쿠** : 자매 중 유독 미쿠와 사이가 나쁘게 묘사된다. 후타로 건으로 많이 대립하기도 했으며, 서로의 얼굴을 디스하기도 했다.<sup>[16]</sup> 성격도 정반대고, 취향도 정반대라 TV 채널에서부터 좋아하는 차 종류까지 온갖 일로 대립한다. 물론 서로 진심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며 자매 간에 티격태격하는 정도. 서로 은근히 놀리는 걸 즐기는지 도발했을 때 상대가 참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진짜 상처를 입은 것 같으면 사과한다.<sup>[17]</sup> ⇨ **2018년 새해 기념으로 작가 트위터에 올라온 일러스트**<sup>[18]</sup>에서도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하는 와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쿠와 니노가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미쿠가 유일하게 속내를 많이 털어놓는 자매로 이치카 왈 **견원지간** 같은 관계라고 한다.
- 나카노 요츠바** : 묘하게 요츠바와는 접점이 많지 않는 관계이다. 그렇다고 니노와 요츠바가 서로 사이가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제대로 얘기하는 묘사는 없었다. 다만, 육상부 활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요츠바의 마음을 니노가 위로해주거나 과거 편에서도 요츠바를 걱정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그려지는 등 니노는 나름대로 요츠바에게 언니 노릇을 잘 하는 편이다. 하지만 최후반부에서 니노는 다섯 자매의 족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려고 한 요츠바가 싫으면 서로 부러웠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 나카노 이츠키** : 이츠키와는 함께 행동하는 묘사가 많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외출하거나<sup>[19]</sup> 담력 시험을 함께 하거나 영화를 보러갔다. 그러나 기말고사 일주일 전의 가정교사 날에는 후타로 건으로 싸우게 된다.<sup>[20]</sup> 애초에 **이츠키**는 보수적

이고 니노는 소녀틱하고 화려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매우 다르다. 자기 싫어하는 성격의 이츠키가 니노 앞에서는 거침없이 막내답게 어리광을 부리기 때문에 니노가 은근히 챙기는 묘사가 많다.

- **나카노 마루오** :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파파(パパ)'이며, 편하게 반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매들 중에서 가장 양아버지와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자매들을 ~군이라고 부르는 버릇을 근질근질거리니까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편한 사이다. 유일하게 마루오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으로 대화가 있는 이츠키는 마루오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우에스기 라이하**: 이츠키와 더불어 가장 접점이 없다. 그나마 '네 여동생' 정도로 언급하는 걸 보면 일단 존재는 알고 있다.

### 3.1. 우에스기 후타로

자매들을 지나치게 아껴서 5명 사이에 누가 끼는 걸 매우 싫어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후타로에게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6화의 '문이 열린다' 편에서 자매들을 굉장히 아끼는 속마음을 후타로에게 들킨 것을 시작으로, 불꽃놀이 에피소드에서는 여전히 못마땅해하지만 조금씩이지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간고사 때 한 명이라도 낙제 시 후타로가 잘리는 걸 알게 돼서 일부러 공부를 안 하려 했지만, 다른 자매들이 후타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을 보며<sup>[21]</sup> 마지막에는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해고 당하는 걸 막아준다. 다음번에는 꼭 전원 합격을 실현시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일단 후타로를 선생님이로 인정한 듯. 중간고사 이후로는 후타로에게 빨리 나가라며 투덜대지도 않는다.

임간학교 때는 여전히 후타로를 못마땅해 하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말고사 때는 이전과 달리 수업에도 참여하며 공부도 해 온다. 하지만 미쿠와의 언쟁을 계기로, 후타로가 **너무** 자매들에게 인정받아 후타로를 가정교사 이상으로 보지 않는 자신이 역으로 집에서 고립된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갈등이 커지다 평소보다도 심한 싸움이 벌어져 가출까지 한다.

하지만 결국 작중행적 문단에 나오듯이 자신이 후타로를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며 고백까지한다. 가족여행 편에서 보듯이 후타로를 부르는 방식도 성 말고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까지 하며 후타로랑 사이가 더 이상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 4. 작중 행적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화에서는 이츠키의 뒤를 쫓는 후타로를 스토커로 오해해 막아서면서 처음 대면한다.

이후 2화에서는 미쿠의 저지를 입고서 과자를 구워오는데, 1화와 달리 사근사근한 태도를 보여주나 했더니 **페이크. 너는 이런 걸 하는 캐릭터가 아니다**라며 아빠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추궁하고, 이내 방심한 틈을 노려 **수면제를 탄 물을 먹여**<sup>[22]</sup> 리타이 어시킨 뒤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버린다.

수면제를 억지로 먹이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이며, 체질에 따라 위험한 약물이 될 수 있다. 몇몇 체질은 수면제 복용이 생명에



큰 위협을 줄 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후타로에 대한 사전조사는 커녕, 방해된다고 먹인 것도 비판받을 점이다. 다행히 후타로가 그냥 자다가 깨어났으니 망정이다. 더군다나 자신이 아닌 후타로가 택시비의 전액을 내야 했다.<sup>[23]</sup>

5화에서는 후타로의 과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자매들도 뿔뿔이 흩어지도록 유도해 과외를 방해하게 만들었다.<sup>[24]</sup> 미쿠까지 내보내려고 하지만<sup>[25]</sup> 뜻대로 되지 않아 다투고, 요리 대결을 하게 된다. 요리 실력은 니노가 압도적으로 위지만 정작 심판인 후타로의 **입맛이 형편없어** 무승부가 나자, 화가 나서 방으로 돌아간다. 결과적으로는 니노의 계획대로 미쿠도 과외를 못 듣게 됐지만.

후타로가 떠난 뒤 샤워하러 들어가는데, 지갑을 놓고 와서 돌아온 후타로와 알몸인 채로 마주치게 된다. 하지만 시력이 워낙 나빠 후타로를 미쿠로 오해하고 낮에 있던 일을 사과한 뒤 **우리 다섯 명의 집에 녀석이 들어올 여지는 없다**며 속내를 드러낸다. 그러나 선반에서 떨어진 책으로부터 니노를 보호하기 위해 후타로가 덮치자, 후타로가 도촬하러 온 것으로 오해한다.<sup>[26]</sup> 다만 오해가 아니라 후타로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도 높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와중에 카메라 셔터 소리를 알아챌 정도의 청력의 소유자가 후타로가 놀라 소리를 쳤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미쿠가 마침내 변호를 포기하고 돌아서자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했기 때문. 또한, **오해였다면 최소한의 사과는 했어야 했지만,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다.커가찰노릇아다

하지만 미쿠와 이츠키가 후타로를 편들어주자 언성이 높아지고, 이치카가 '예전에는 사이좋은 5자매였잖아'라고 하자 집을 뛰쳐나온다. 이후 키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로 건물 밖에 쭈그려있다가 후타로와 마주치고, 후타로로부터 자매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기에 이분자인 후타로를 싫어하는 거라는 속마음을 찢려 감정을 정리한다.이후 니노를 데리러 온 미쿠를 끌고 집으로 돌아간다.

다섯 자매의 추억이 있는 8화의 불꽃놀이 축제에서는 평소보다 기합이 많이 들어간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축제의 인파 속에서 미아가 될 거 같자 복잡한 표정으로 후타로의 소매를 붙잡고 따라간다.<sup>[27]</sup> 그러나 나머지 자매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올해의 관람 포인트는 니노 혼자 알기에 후타로랑 니노 단둘이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처지가 된다. 후타로가 결국 이치카를 데리고 오자 마지못해 수고했다고 말한다.

13화에서는 나카노 자매의 메일 주소를 모으러 다니는 후타로에게 메일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으려 하지만, 이미 다른 넷이 메일 주소를 교환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후타로의 학생수첩에 번호를 적어준다. 하지만 후타로가 학생수첩을 놓고 가는 바람에 자기가 갖고 돌아가며, 다음날 아침부터 후타로가 수첩을 가지러 방에 들이닥치자 기겁한다. 그리고 수첩을 돌려주는 대신 귀를 뚫어달라고 요청하지만 후타로가 거침없이 귀를 뚫으려 하자 겁먹고, 자기만 아픈 건 화난다며 후타로의 귀도 뚫으려 한다. 그러다가 떨어진 수첩이 넘겨져 후타로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완전히 자기 타입이라며 반해 나중에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

이후 후타로가 중간고사 대비 과외를 소집할 때 스토크 취급하고, 후타로가 한번만 더 하게 해주면 네가 모르는 걸 이것저것 가르쳐줄게라고 해 역공을 먹자 뺨을 때린다. 이후에도 계속 과외를 방해하려 들고, 목욕하는 후타로에게 이츠키인 척 하고 말을 걸어 다섯 명 중 하나라도 낙제하면 후타로가 해고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즐거워한다.

과외는 참석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하지만 후타로가 좋아하는 여성상 Best3에서 활발하고 요리 잘 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자 자기인 줄 알고 내심 신경썼다. 마지막에 오빠를 아낀다라는, 내놓고 여동생을 좋아한다는 결론을 나온 것을 보고는 화를 냈지만. 후타로가 자고 간 다음날, 이츠키가 후타로와 화해하고 과외를 듣는 것을 2층에서 내려다본다.

시험 전날에 후타로가 한번 더 나카노 자매의 집에 남아 철야해서 시험대비를 하겠다고 하자 반대하며 이츠키도 반대하지 않냐고 묻지만, 의외로 이츠키가 반대하지 않자 놀란다. 시험 당일에는 어차피 전원 통과는 불가능하고 시험의 결과를 아빠에게 사실대로 말할 거라고 말했지만, 공부에 담을 쌓던 이치카와 미쿠<sup>[28]</sup>가 외국인 미아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아연해한다.

과외를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옆에서 들으며 신경은 쓰고 있었는지 후타로가 가르친 내용을 기억하며 영어 한정으로 낙제점을 벗어난다. 결과적으로는 각자 한 과목씩만 낙제를 면했으므로 후타로가 해고되게 됐지만, 직접 아빠와 통화해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도 있어"**라며 후타로를 변호해주고 다섯 자매가 다섯 과목을 통과했다고 말해 후타로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준다.

21화에서는 요츠바가 미쿠의 고로케를 너무 먹고 쓰러진 후타로를 움직이면 죽는 병이라고 거짓말해, 평소처럼 틱틱대는 대신 죽을 끓여준다. 그러다 케첩통을 밟고 넘어져 뜨거운 죽이 후타로의 얼굴에 쏟아져 울먹이며 사과하지만, 피병이었음을 눈치채고 화내며 떠난다. 하지만 평소처럼 쫓아내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기는 한듯.

23화에서 후타로와 이치카를 제외한 다른 자매들과 함께 임간학교 전에 옷을 사러 가는데, 혼자 진심으로 후타로에게 멋있는 옷을 골라주고 창피해한다.(...) 그리고 후타로의 어릴 적 사진을 다시 보고 **어디서 본 것 같다**며 떡밥을 뿌린다.<sup>[29]</sup> 임간학교에 가던 도중 눈 때문에 길이 막혀 여관에 묵을 때는 후타로와 자신들이 한 방에 잔다는 사실에 가장 뚜렷하게 거부감을 보여주고, 특히 누가 후타로의 옆에서 자야 하는지를 걱정했다.

임간학교의 둘째 날에는 카레 만들기에서 조를 지휘하며 요리 솜씨를 뽐낸다. 밥을 담당한 남학생들이 밥을 태워먹고서도 변명하자 그럼 카레나 보러 가라며 웃는 얼굴로 분노하기도. 담력 시험에서는 이츠키와 한 조를 이루는데, 이츠키가 광대 분장한 후타로를 보고 놀라 도망치고 손전등 대신이던 휴대폰 배터리도 나가는 바람에 어두운 숲에 혼자 남겨진다. 그리고 놀라 주저앉은 상태에서 금발 가발을 쓰고 니노와 이츠키를 찾고 있던 후타로를 만났다. 그런데 숲의 어둠 때문인지 후타로를 사진 속의 소년으로 착각한 상태다.<sup>[30]</sup>

후타로는 그냥 니노의 착각을 긍정해주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츠키를 찾기까지 동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상형인 금발 가발을 한 후타로에게 발견되며 눈에 콩깍지가 씌였는지, 금발 후타로가 일부러 어색한 불량아 연기를 하든 잡지식을 내세우든 호감도가 올라간다. 이후 절벽에 떨어질 뻔한 자신을 구해준 금발의 후타로에게 반해 캠프파이어의 피날레 때 같이 춤을 추자고 사실상 고백을 한다. 이 때 후타로에게서 **라이하**가 만든 부적을 받는다.

3일차의 스키는 혼자서 타지만, 후드를 쓴 후타로가 이전에 자신이 붙여준 반창고를 떨어뜨린 것을 보고 후타로의 친척으로 오해해 쫓아가지만 놓친다. 이후 이츠키를 찾아다닐 때는 이치카<sup>[31]</sup>가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고 하자 이츠키가 걱정도 되지 않냐며 버럭 화를 내기도 하지만, 후타로가 이츠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자 믿어준다. 후타로가 완전히 쓰러지기 전 간신히 니노에게 '킨타로는 급한 일이 생겨서 갔다'는 거짓말을 해도 기다리지만, 키타로에게 캠프파이어 때 춤추자고 했지만 차인 상황에서, 후타로는 이츠키를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을 떠올리며 캠프파이어를 뒤로 하고 떠난다. 그리고 후타로가 누워있는 방에 부적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찾아왔다가 다른 자매들과 마주친다.<sup>[32]</sup>라는 의미에 돌려준다고 생각하는게 맞을듯하다. 이후 5명 전원 후타로의 손가락을 하나씩 잡고서 채유를 빌어준다. 33화에서는 예방접종을 피해 후타로의 병실에 찾아왔다가, **라이하**의 부적을 후타로가 끼고 있는 것을 훔쳐 보게된다.

이후 39화부터 본격적인 기말고사 대비가 시작되고, 중간고사 때 말대로 시험공부에 참여한다. 그러나 상극인 미쿠와 한 자리에서 공부하니 사사건건 부딪히며, 니노는 후타로를 싫어하고 미쿠는 후타로를 좋아하는 만큼 대립이 평상시보다도 거세진다. 니노가 시험범위 외의 과제를 해온 것을 미쿠가 할 거면 제대로 하라며 핀잔주자 혼자 방에서 공부하겠다고 들어가는데, 후타로가 쫓아가 설득하려던 것이 불에 기름을 부었는지 후타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외자에 불과하다며 화낸다. 여기에 미쿠가 가세해 후타로가 만들어 준 문제집을 건네주자 그런 건 필요없다며 내치다 본의 아니게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고, 미쿠가 주우라고 하자 오기 때문인지 떨어진 문제집 중 한 장을 찢어버린다. 그리고 미쿠와 싸움이 벌어지는 듯 했으나, 그 전에 이츠키가 니노의 뺨을 때린다.

분노한 니노도 이츠키의 뺨을 때리지만, 주변에 자매들 중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걸 느끼고서 가출한다. 하지만 지갑을 놓고 간 이츠키와 달리 호텔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 다음날 후타로와 미쿠가 니노를 찾으러 가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아 울면서 **"너만 안 왔으면 됐는데"**라며 화내고, 후타로가 차고 있던 부적을 빼앗고서 차라리 키타로가 가정교사였으면 나을 거라고 한다. 후타로가 평일에도 학교에서 니노를 쫓아다니며 시험에 합격하도록 만들어 줄테니 돌아오라고 설득하지만 **"합격하면 뭐? 그래서 어쨌다고"**라며 화낸다.

하지만 이후 사진 속 소녀로부터 작별을 통보받고서 흠뻑 젖은 채로 죽은 눈이 된 후타로가 호텔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 동정심이 들었는지, 너같은 게 거기 있으면 남에게 폐가 되니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사귀는 후타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처량한 모습으로 있었냐고 묻고, 후타로가 레나와 헤어진 이야기를 듣고 운다. 이 때 전에 찢은 문제집을 다시 테이프로 붙여 푼 것을 후타로에게 들키고서 사과한다.

그러나 이츠키가 후타로를 거들어 자신을 때릴만큼 변해버린 것에 미련을 못 버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후타로에게 지금껏 말하지 않은 고민 하나를 털어놓는다. 옛날에는 5명 모두 똑같아서 동질감을 느껴 편했지만, **5년 전부터** 다른 4명은 성장해 자립해 가는데 자신만이 과거에 집착해 여태 머리 모양도 못 바꾸고 홀로 남겨져가는 게 숨겨진 고민이었다. 후타로와 얘기한 니노는 이제 그 미련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마지막 남은 미련인 키타로와 제대로 작별하고 싶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후타로가 다시 키타로로 변장해 찾아온다.

그렇게 키타로와 함께 사이좋게 시간을 보내지만 키타로의 얼굴을 보고 후타로라는 사실을 눈치챈다.<sup>[33]</sup> 키타로가 다섯 명이 함께 있는 게 좋라며 정체를 밝히려 하자 말을 끊고 나가 후타로를 따로 불러내고, 감사인사를 하는 척 하며 손목의 부적을 확인해 정체를 재확인하고서 수면제로 재우고 호텔을 떠난다.

이후 니노는 다른 호텔로 가지만 로비를 나갈 때 다시 니노를 만나러 왔던 미쿠에게 발견되어 어디로 거처를 옮겼는지 들킨다. 미쿠가 새 호텔로 찾아왔을 때는 같이 흥차와 녹차를 끓여 마시며 서로의 차 취향이 다른 걸 디스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달라지고 부딪히기만 하니 같이 있지 않는 게 낫다며 가출의 이유를 설명하지만, 미쿠가 이유는 **가족이니**까로 충분하다고 반론하자 말을 잃는다.

그리고 미쿠가 니노가 흥차를 좋아하게 된 것, 자신이 전국무장을 좋아하는 것을 들어, **각각은 부족한 인간인 다섯 자매가 서로 다른 채로 서로를 보충해주며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면 되니 서로 다른 것도 좋다고** 하는 설득에 마음을 돌리게 된다. 이후 다시 서로 흥차와 녹차 중 자기 차가 좋다고 다투다가 흥차도 녹차도 결국 같은 잎이라는 걸 알게 되어 웃지만, 뭔가 떠올랐는지 웃음을 멈추고 정색한다.<sup>[34]</sup>

이후 결심했다며 가위를 들고 미쿠에게 다가가는데, 이후 예전에 말한 대로 과거의 다섯 자매와 결별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바꿨다.<sup>[35]</sup> 요츠바와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단발로 머리를 자르고서 요츠바로 변장해 살기를 드러내며 육상부장에게 퇴부하겠다고 통보하고, 요츠바에게 굳이 변장해서 속이지 않고서도 진심을 말하면 알아줄 거라며 충고한다. 이후 이츠키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는데, 화해의 선물 삼아 니노는 이츠키가 좋아하는 과학영화 티켓을 가져왔는데, 이츠키는 니노가 좋아하는 연애영화 티켓을 가져온 것에 헛웃음을 짓는다.

2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전원이 한두 과목씩 낙제한 뒤에는 후타로가 그만뒀으며 이 집에 출입금지당했다는 말을 듣고 자매들과 함께 후타로를 다시 설득하러 간다. 여기서 후타로가 능력 부족으로 너희들을 낙제시킨 내가 계속 교사를 맡는 것은 이기적인 거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낸다.

이후 후타로가 강에 빠졌을 때 다른 자매들과 함께 물로 뛰어드는데,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 몸이 안 움직이는 지 가라앉을 때 후타로가 물에 떠내려가는 레나의 부적과 니노 사이에서 니노를 선택함으로써 과거의 인연을 잊고 현재를 선택한 것의 상징이 된다.

크리스마스의 이후로는 후타로에게 훨씬 더 온화하게 대하지만 집에서 공부할 때도, 놀이공원에서 유령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미쿠와 초콜렛을 만들 때도 키타로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어서 잊으려고 애쓰고, 자신의 이상형과 전혀 다른 후타로에게 끌리는 현실을 부정하려고 한다. 요츠바, 후타로를 데리고 세일하는 날에 맞춰 장을 볼 때는 후타로와 커플로 보일 정도로 친근하다. 양아버지가 이츠키와 단둘이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후타로가 나서려 하자 손을 잡아 제지하고 아버지의 말이 옳다며 수긍한다.<sup>[36]</sup>



학기말고사를 준비하는 1~3월에는 계속해서 후타로에게 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후타로는 자신에게 별 관심도 없을 것이라 애써 생각하고, 학기말고사가 끝난 후 뒤풀이에도 미리 와 성적표만 두고 간 후 다시는 후타로와 만나지 않겠다며 가버린다. 그리고 전에 살던 아파트 앞에서 아버지와 만나기로 해 이번 학기말고사의 성과를 인정받지만, 다섯 쌍둥이끼리 상의한 결과 계속해서 지금 사는 낡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싶다고 한다. 이게 완전한 자립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새로운 집에 살면서 조금이지만 앞으로 진전한 것 같다<sup>[37]</sup>는 니노에게, 아버지는 진전같은 추상적인 소리는 설득력이 없고 너 희 사는 모습은 오히려 퇴보라며 5년 전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은 건 아닐 거라며 비난한다. 하지만 그때 가게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빌린 후타로가 니노를 뒤풀이로 데려오기 위해 찾아오고 니노는 아버지와 후타로 사이에서 후타로를 따라간다.<sup>[38]</sup> 갑자기 부녀 싸움에 끼어든 후타로가 뺨뺨한 표정으로 **아버님, 그럼 따님을 데려가겠습니다**라며 말하는 건 덤.

이후 후타로의 뒤에 타고 뒤풀이 파티로 돌아가며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는데 왜 왔냐고 묻자 후타로가 인간관계는 한쪽 뜻대로는 안된다고, 즉 니노가 만나기 싫다고 떠나더라도 자기는 데리러 오고 싶어서 온 거라는 투의 말을 한다. 하지만 이걸로 다섯 쌍둥이의 성적은 낙제를 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자매들의 유대가 회복된 이상 이제 후타로의 도움 없이도 잘 해 나갈 수 있게 돼서 후타로도, 니노도 이제 가정교사와 학생으로서 만나는 건 마지막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타로가 **쓸쓸해질 것 같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후타로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며 억눌러왔던 마음이 무너지고 후타로에게 **좋아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 고백은 후타로가 듣지 못하는데, 니노는 잠시나마 안도하다가도 후타로가 본인들 쌍둥이들을 연애대상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하게 여겨 다시 한번 정면에서 고백한다. 43화에서 나왔던 '너같은 사람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다'라는 말의 그 한 명이 자기라고 말하는, 마치 후타로와 대결이라도 하는 듯이 오기로라도 들이대며 어필하는 모습이 일품.<sup>[39]</sup>

이로써 최초의 고백은 미쿠가 했지만 후타로가 인식한 최초의 고백은 니노가 한 것이 되었다. 덕분에 후타로가 흔들려 한동안 멍때리고 그녀를 피하기도 한다. 장보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미쿠가 니노한테 부탁 받은 게 있다는 말에 가려다 말고 니노가 뭐라고 안 하던? 이라고 묻는 등 니노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가족 여행 온 후타로하고 우연히 만난 니노는 조용히 후타로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호칭 또한 성으로 부르던 전과 다르게 '후타로 군'이라고 바뀐다. 이를 듣고 당황한 미쿠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냐는 질문에 반년이나 알고 지냈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 오히려 미쿠에게 후타로 별명 좀 지어보라고하자 '후 군'이라는 별명에 만족해한다. 그날 밤 후타로가 이츠키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혼탕에 들어가 여탕에 있는 이츠키와 논의를 하던 중, 후타로를 봤는지 수건 한 장 걸치고 직접 찾아가서 몸이라도 씻겨줄까 라면서 자극적으로 제안했지만 되레 누구냐 질문 받자 매우 화를 내며 탈의실에서 두고 보자고 이를 갈더니 돌아가버린다.

다음날 바다로 가기 전 쌍둥이 중 장녀이자 언니인 이치카한테 등을 밀어주면서 상담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남을 좋아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물론 몰래 들었던 이치카는 니노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니노는 그런 이치카한테 만약 고백을 받으면 그가 자신을 의식할까 라고 물어보자, 똑같이 후타로를 좋아하던 이치카는 의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어쩌서 그를 좋아하냐는 이치카의 질문에 니노는 **처음엔 맘에 들지 않았지만 어느 덧 자신이 좋아하고 있단 걸 깨달았고, 사실 그를 싫어한 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부수는 그의 직책이 싫었다**면서 후타로를 향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다.

당연히 **그런 억지나 다름 없는 말**에 이치카는 좀 뻘뻘한 짓이 아니냐며 정색하고, 니노 또한 곰곰히 생각하다 인정한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니 됐다고 말하는 니노의 모습에, 이치카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하자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들을 걷어차버릴 거라고 선언한다. 그 후 곰곰히 고백만으로 부족한 게 아닐까, 고민하다가 이치카가 무슨 생각이냐고 묻자 일단 손을 잡아보고 껴안아보고 그래도 그가 의식하지 못하면 후타로한테 **키스**를 해서라도 자신을 의식하게 만들자는 결론을 말한다.

이치카와 목욕을 끝낸 후 모두 함께 바다에 가서 놀다가 우연히 후타로와 단 둘이 만나게 되고 후타로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이츠키의 모습인 탓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잠시 거둔다. 이후 타이밍을 재다가 역시 할아버지가 있

으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이치카한테 밤에 후타로를 만나러 갈테니 아버지를 붙잡아 달라 부탁한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에 몰래 빠져나가 후타로를 기다리던 도중 아버지한테 들켜 붙잡힌다.<sup>[40]</sup> 이치카가 자신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자 이를 계기로 이치카 또한 후타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란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이치카한테 자신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다고 묻지만 있다고 해도 말 못하니까 비밀이요란 대답 듣고 그것도 그렇다하고 납득한다.

온천 료칸에서 여행이 끝나고 이치카로부터 이제부터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자고 말하자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우연히 후타로가 일하는 케익 가게가 알바를 구한다는 전단지지를 보고 체력으로 밀리는 미쿠보다 먼저 전단지를 빼앗는다. 당연히 미쿠는 그걸 내놓으라고 하나 싫다고 말하고 요리는 자기 특기니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하자 왜 하필 후타로가 일하는 가게냐고 묻는 미쿠한테 후타로가 있는 건 본의가 아니라면서 입술을 핥으면서 입맛을 다신다. 그렇게 서로 신경전을 펼치더니 결국 둘이서 나란히 케익 가게에서 면접을 보게 된다. 후타로한테 말긴다는 점장한테 둘이 서로 나서며 누굴 고를 거냐면서 선택하라고 어필하자 결국 후타로는 요리 대결을 제안하고 당연히 요리가 특기인 니노한테 미쿠는 지고, 니노가 합격하게 된다. 그렇게 빠진 미쿠는 후타로와 니노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가게 맞은 편 케익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며 뿌듯해하는 미쿠의 모습에 자신이 진 거 같다며 분해하지만 이 알바를 통해서 후타로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71화에서 사실상 니노에 니노에 의한 니노만을 위한 특집으로 학급 회의가 끝나고 방과 후 미쿠가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첫 일이 아니냐고 묻고 그렇다고 수긍하는 니노한테 미쿠가 잘 됐다면서 후타로한테 생일선물로 무얼 받고 싶냐고 떠보라고 말하자 자신이 해도 되냐고 역으로 묻는다. 그러자 미쿠는 괜찮다며 생일에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에 놀라고, 이후 똑같이 후타로를 좋아하는 이치카의 눈치를 살피더니 둘 다 별 다를 행동을 하지 않고 있자, 분명 자신이 후타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을 말긴다는 것에 의아함을 느끼고, 봄 방학 때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리드하고 있을텐데 라며 초조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치카와 상담할 때 고백을 받았도 의식한 적이 없다는 말이 떠오르고, 그런 이치카의 말을 부정하면서 의식 안 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한다.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묶은 상태에서 후타로와 만나고, 아직 서로가 어색하면서 머리 모양이 어떠냐는 니노의 질문에 일하기 편하겠다면 또다시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발목잡지 말라는 후타로의 말에 촌촌대며 자신이 누군인지 모르냐고 말하자 후타로는 비웃으면서 사회생활의 혹독함을 느껴보라고 말한다. 그 후 완벽하게 케익을 만들며 점장으로 부터 칭찬을 받고 그런 니노를 후타로가 뒤에서 보다가 니노가 뒤돌아 보자 자리를 피한다. 그 모습에 오히려 고백 후 거리가 생긴 것 같다며 차라리 고백하지 말 걸 그랬냐며 후회하다가 니노가 와서 다행이라며 오늘 여기 케익 가게에 전설의 파워 블로거리뷰어가 1명 온다고 하면서 그 이름은 불명, 정체도 불명인 정말로 아무도 알 수 없는 **M.A.Y**, 그 리뷰어의 한 줄 평가만으로 가게 평판이 달라진다는 말에 니노는 긴장을 하게 되고, 이 가게의 점원으로 녹아들어 후타로와 가까워지기 위해 신경을 쓰게 되자 양쪽에 신경이 쏠린 탓에 실수를 해버리고, 맛에 위화감이 있다는 말에 놀라고 보다 더 일을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후 휴게실에서 후타로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자신이 실수로 모두가 더 바빠보인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자, 후타로는 너 잘못이 아니라면서 휴게실을 나가자 후타로 앞에서 실수를 한 자신에 대해 자책을 하는 중에 후타로가 상자를 들고 휴게실로 들어오고 자신 또한 실수를 했다면서 1년치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닌 10년치 크리스마스 장식을 주문했다던가 책상에 상처를 내던가 자신이 깨먹은 점시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털어놓자, 자신을 격려해주는 거냐고 묻는다. 그러자 뜨끔했는지 아니라면서 자신은 일의 가혹함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하면서 일단 자신이 선배니까 라고 말하자 그렇다면 왜 자신을 피하냐고 묻고 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고 신경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니노의 모습에 여러 알바를 하면서 통감한다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면서 운운하다가 그래서 고백을 받은 건 처음이라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후타로가 나는 너를 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말을 끊고.

기다려,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알아. 너를 매몰차게 대했으니까 하지만 아직 정하지 마.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무것도 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나에 대해 알아봐줘.

그리고 후타로와 눈을 마주치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한다.

내가 얼마나 후타로를 좋아하는지 알아줬음 좋겠어.

그렇게 2차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후타로한테 또 혼자만 좋아했다며 얼굴을 크게 붉히지만, 점장이 M.A.Y가 왔다고 부르는 소리에 후타로가 서둘러 나가고 후타로를 보고 어쩐 일이냐면서 얼굴이 귀까지 새빨갳다고 하자. 그가 자신의 고백을 인식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짓고 후타로 뒤로 다가가서 살짝 그에게만 들리게 말한다.

각오해— 후군.

이후 가게에 온 M.A.Y를 보고 마스크에 선글라스를 하고 바바리 코트를 입었지만 특유의 그 별무늬 장식과 바보털과 헤어스타일로 너무나도 누군지 알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에 후타로와 서로 바라보다 웃으며, 자신이 그 리뷰어한테 주문받으러 간다면서, 후타로를 바라보고 입키스를 날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공공연히 보여준다. 이후 마스크를 내리며 이츠키를 놀래는 걸로 71화는 끝.

그리고 75화에서 이치카로 하여금 후타로가 모의고사 일로 피곤하니 생일 선물에 대한 건 백지로 돌리자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sup>[41]</sup>, 모두가 모의고사를 모아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치카 앞에서 보란듯이 선물상자를 품에 안고 나타난다. 이에 크게 당황하는 이치카가 그게 뭐냐고 묻자 요새 피곤한 거 같은 후타로를 위해서 생일선물로 아로마 향초를 구매했다는 것, 그리고 능청스럽게 당일까지 비밀이었다면서 말하자 이치카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봤냐고 묻자, 봤다고 하면서 주고 싶은 건 주고 싶다고 말하다가 이렇게 되면 자신만 주는 것이냐며 효과가 장난 아니겠냐고 미소를 띤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니노의 모습에 당황한 이치카를 바라보며 니노는 이미 이치카가 선물을 몰래 준비한 걸 간파하였고 선물이 뭐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기프트 카드를 드는 이치카를 바라보며 봄방학 때 아빠를 막아주기로 했으면서 왜 아빠가 나타났냐며 변명할 게 있냐고 물어본다.

이치카는 잠시 침묵 후 쌍둥이 모두가 취향이 다르지 않냐고 묻자, 당연히 요리가 취미이자 특기인 니노로서 이미 다들 입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긍정하자 이치카는 후타로를 좋아하냐고 다시금 묻는다, 그에 니노는 망설임 없이 **엄청**이라고 대답하자, 이치카 또한 자신도 마찬가지라면서 미안하지만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선전포고한다. 그 모습에 니노 또한 언니랍시고 되게 내려다보는 말투라며 비꼬듯이 받아치고 두 사람 사이로 스파크가 튀기 시작하는데

이후 같이 도서관으로 온 둘을 보고 요츠바가 놀라자, 후타로가 온 줄 알았다면서 자신이 후타로를 줄 선물이 학 1000마리를 접고 있다고 둘에게 전한다. 왜 1000마리냐는 질문에 모의고사 합격기원 겸 생일선물이라고 하자, 생일선물은 중지 아니였냐고 묻자 요츠바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한다면서 자신만 반칙쓰는 것 같다고 인간으로서 글러먹었다고 하자, 이치카랑 나란히 얼굴이 굳는다. 그리고 미쿠까지 후타로의 선물로 헬스 티켓 2장을 구했다고 자백을 하자, 할 말을 잃고 이에 이치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합격으로 극복한 후 선물을 주자는 의견을 내자 당황하며 이래도 괜찮냐고 묻자, 이치카가 **어차피 자신의 선물을 제일 좋아할 거라고 말하는 모습**에 아아견, 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짓는다.

77화에서 수학여행 때 교토에서 후타로를 본격적으로 공략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대망의 78화, 제목부터가 시스터즈 워. 수학여행에서 최소 2인에서 최대 5인으로 조를 지어서 활동해야하며 남녀 구분 없이 조를 짤 수 있다는 소식에 이치카, 니노, 미쿠 모두 후타로와 한 조가 되는 것을 노리기 시작하고, 조를 짜기 전 미리 요츠바한테 부탁하는 미쿠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요츠바의 성격을 알고 있기에 부탁하는 이치카, 그렇게 후타로와 나카노 다섯 쌍둥이가 독서실에 모여서 공부하기 위해 모이자 후타로를 뚜렷이 응시하는 이츠키의 모습에 뜨거운 시선을 보내나

고 말하자 이츠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돌릴 때 미쿠가 수학여행 이야기를 하자며 말을 꺼내고 후타로한테 누구랑 같이 조를 할 지 정했냐고 미쿠가 묻자 당황하는 니노와 이치카, 그러자 이치카는 요츠바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요츠바로 모두의 시선이 향하고, 요츠바는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자기만 다른 조에 들어가고 후타로와 4명에서 같은 조가 되는 게 어떨냐고 묻자, 후타로도 그건 아니라고 말하며 안되냐는 요츠바에 말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말을 꺼내려는 순간, 니노가 맞다며 후타로의 말에 동의하면서 이 결과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특히 자신이 그렇다면서 이치카, 미쿠가 들으랴듯이 예를 들어 나랑 후군만 조를 짜는 거야 라고 폭탄선언을 한다. 그에 놀라는 이치카와 후 군이라는 칭호에 당황하는 미쿠한테 선전포고 하듯 요츠바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정했다며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다닐거야, 거부권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갑작스런 니노의 모습에 멋대로 굴지 말라고 후타로가 말하자 후군은 조용히 있으라며 입 다물라고 하자 미쿠가 후군이라 더듬으면서 멘붕한 나머지 말을 더듬자, 그런 미쿠의 반응이 맘에 안 들었는지, 대놓고 이치카와 미쿠를 쏘아보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 재촉한다. 아무 말도 못하는 이치카와 미쿠의 모습에 그럼 결정이라면서 2인조를 짰다고 하자, 후타로가 결정하지 말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다.

당연히 자신이 대놓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거부하는 후타로한테 빠진 니노는 지금은 가만 있으라고 말하고 너 같은 게 나랑 데이트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라고 말하자 후타로가 자신은 이미 조가 있다고 말한다.아 때 뒷모습만 보여주는데 어떤 표정일 지 태략 예상아간다.

그렇게 후타로가 다른 사람과 조를 짠다는 사실에 빙썸 있다가 화를 내며 왜 이렇게 되는거냐면서 다섯 쌍둥이가 한 조가 된 것에 불만을 표출한다.

80화에서 산책로를 걷는 후타로를 다른 자매들과 함께 뒤쫓는다. 이치카가 무언가 공공이가 있는 것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선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하지만 그 이후 이치카는 니노와 이츠키가 화장실에 간 사이 먼저 가버리고 산 정상에서 미쿠, 요츠바와 조우하여 헬게이트가 열리고만다.

81화 뒤늦게 산 정상에 도착하여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는 미쿠를 보면서 이치카가 미쿠로 변장하여 일을 저지른 것을 깨닫고 먹살을 잡으면서 분노한다. 하지만 이치카는 무슨 일이든 물불 가리지 않는 니노에게만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서 차갑게 받아치고 설령 후타로가 자매들 중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나는 축복하고 싶었다면서 사랑 이전에 5명의 유대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니노 역시 눈물을 보이고 만다. 밥을 먹고 타케다, 마에다와 천천히 올라오다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당황하는 후타로를 요츠바와 함께 미쿠를 뒤쫓으라고 보낸 이후 이치카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간다.

숙소에서 역 앞과 산책길 위에서 자신을 몰래 찍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이츠키와 요츠바에게 상담하지만 이츠키는 근데 왜 자매들 중에 니노를 찍조?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방에 틀어박힌 미쿠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 밖에서 그녀를 어떻게든 나오게하려 하지만 절망한 미쿠는 핸드폰도 받지 않는 상태. 그 순간 복도 너머에서 몰카범의 카메라를 발견하고 요츠바, 이츠키와 함께 도망친다. 이 소리를 듣고 걱정된 미쿠가 전화를 걸었고 내일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81화 종료.

82화에서는 자매들이 사이좋게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첫 등장. 천수각으로 일행을 따라가지 않고 미쿠로 변장해 선생님들에게 몸이 아프다며 휴식을 요청. 미쿠와 이야기를 하기위해 방으로 돌아온다.

이치카의 배신과 자기자신의 나약함에 큰 충격을 받고 내면으로 틀어박혀버린 미쿠에게 자신은 너를 동정할 생각이 없으며 미쿠가 이대로 주저앉아있는다면 후타로를 받아갈 것이라고 선언한다. 니노가 언제부터 후타로를 좋아하게된 것인지 놀라는 미쿠에게 미쿠가 먼저 사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보할 생각은 없으며 자신도 이런 사랑의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이치카를 떠올린다) 후타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매 중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라라고 말한다.

미쿠는 아직 자신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치카도 니노도 자신보다 더 빛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눈물을 보이지만 니노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미쿠에게 너 역시도 다섯쌍둥이이며 나를 보고 그렇게 귀엽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데 너도 그만큼 귀여울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며 나름의 격려를 한 이후 방을 나간다.

이후 미쿠와 쪽 방에 있었던 모양. 자매들이 다 돌아오자 이치카에게 미쿠한테 할 말이 있지 않냐고 넌지시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주나 오히려 미쿠만 이치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 이어 후타로가 들어와 화해한거냐고 묻자 이치카와 같이 적당히 둘러댄다. 선택코스를 정해야할 때 이치카의 마지막은 운에 맡기자는 제안에 유일하게 반대하나 나머지 자매들이 동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 합류한 코스는 A코스. 역사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었어.

코스가 달라 후타로와 만나지 못한 김에 우울해하던 미쿠가 걱정되어 보러왔다가 다른 자매들과 함께 미쿠의 데이트를 도와주게 되었다. 그러나 후타로와 미쿠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후타로에게 백허그를 시전. 물에 빠뜨려버리고 말았다. 이후 이치카에게 자신도 질투를 느끼고 제어를 할 수 없었다면서 어쩌면 타이밍이 달랐다면 이치카처럼 자신도 행동했을 지도 모른다고 밝히며 눈물을 보인다.

과거편에서 '후군'이라는 애칭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니노로 밝혀졌다. 정확히는 요츠바에게 들은 이름을 까먹고 후 뭐시기 군이라 부르다 후군으로 줄여버린것. 사라졌다 돌아온 요츠바를 걱정하고 후타로를 소개해주려는 요츠바를 따라가다가 요츠바인 척하면서 후타로랑 놀고 있는 이치카를 발견한다. 이로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떡밥이 해결. 그래서 니노팬들은 **그냥 지나친 거였나**면서 실망한건 덤.

이후 현재편으로 돌아와서 후타로하고 같이 수영장에 가나 별 진전이 없었다.<sup>[42]</sup> 그래서 후타로하고 같이 점장 병문안을 갈 때, 쪼잔한 남자라느니 땀냄새 난다고 하는 등 매도를 한다. 그러다 후타로의 나 싫어하게 된 거 아니냐 질문에 밀당임을 밝힌다. 곧 후타로의 놀랐다는 말에 놀랐냐고 묻고 그가 얼굴을 붉히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건 덤.

104화에선 니노의 아버지 마루오가 근처에 있음에도 후타로와 키스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112화에선 다른 자매들과 같이 각자 정해진 교실에 가서 후타로를 기다리는데, 113화에서 대사는 없고 미쿠가 끝났다면 찾아오자 자매들 중 유일하게 눈물을 보이면서 미쿠와 포옹을 나눈다.

115화에선 요츠바의 사과를 받고 걱정받게 되는 건 싫다면서 이대로 관계가 지속된다면 자매의 연을 끊을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120화에서 미쿠와 함께 제빵사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어릴 적 꿈인 일본 제일의 케이크 가게를 차리려는 꿈을 향해 가는 것 같다.

122화에선 마지막 쌍둥이 게임을 하며 자매 중 유일하게 눈물을 보인다. 그리고 후타로가 너의 강함은 남들의 몇배나 되는 약함의 반증이며, 엄격함도 그만한 애정이 있기에 나오는 거라고 말하고 **그때의 나는 이 답을 찾지 못했었다. 미안.** 이라고 말하자, 후타로에게 **됐어... 난 후회 안해...**<sup>[43]</sup> 라고 말한다.

말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 후타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5. 성적

-	국어	수학	이과	사회	영어	총점
쫄지시험	20점(3등)					



2학기 중간고사	15점(5등)	19점(4등)	28점(2등)	14점(5등)	<b>43점(1등)</b>	119점(4등)
2학기 기말고사	19점(5등)	22점(4등)	<b>38점(4등)</b>	27점(3등)	<b>45점(1등)</b>	151점(4등)
3학기 기말고사	32점(5등)	33점(4등)	40점(4등)	48점(2등)	56점(1등)	209점(4등)
꼭지시험, 3학기 시험 제외 낙제점인 30점 이상의 점수는 <b>굵은 글씨</b> 표시						

처음 후타로와 만났을 때의 꼭지시험 점수는 20점, 중간고사는 국수이사영 15, 19, 28, 14, 43점으로 다섯 쌍둥이 중 중간 정도의 성적이다. 영어 성적이 유독 눈에 띄는데 본인은 후타로의 수업을 안 듣겠다고 말해놓고 거실 근처 식탁에 앉은채 후타로의 강의 내용에 나름 귀기울인 듯하다.

## 6. 어록

뭐야, **너**. 스토커?

너 인기 없지? **빨리 집에 가라**.

바이바이~.

**킨타로 군**. 넌 내일 어디 있을거야?  
우리 학교는 내일 **캠프 파이어**를 하거든. 그때 하는 포크 댄스에는 전설이 있어. 피날레 때 손을 잡고 있던 짝은 맺어진다고 하더라. 꽤 애매한 전설이라 손만 잡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남의 시선을 신경쓰는 애들은 옆에서 몰래 하는 거 같아. 진짜 다들 호들갑이야, 애들같아.  
**킨타로 군**, 나와 함께 춤춰주지 않을래? 기다릴게.

그렇지, 넌 계속 이기적이었어. 그래서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했고, 필사적으로 암기하고 공식을 외우고, 하지만 문제를 풀었더니 기뻐졌어. 여기까지 온 건 전부 네 탓이니까. 마지막까지 이기적으로 굴어! 겸손한 너는 소름끼치거든!

진짜 못됐어. 나쁜 놈. 그리고... 그래, 좋아해.

너 같은 남자라도 좋아해줄 여자가 세상에 한 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했지? 그게 나야. 유감스럽게도.

각오해 - **후 군**.

예를 들어 이러는 건 어때? 나랑, **후 군** 둘 만 조를 짜는거지, 요츠바의 의견이 뭔지 몰라도 난 처음부터 정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다닐거야. **너**에게 거부권은 없어.

'**네**가 가장 (후타로를 사랑하는 것이) 빨랐을 지도 모르겠다.'  
 '사랑에 시간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도 잘 아는 것은 아니야'  
 '이런 건 처음이거든. 뭐가 옳고 그른 지는 잘 모르겠어'  
**확실한 건 누구보다 내가 **개**를 좋아한다는 것**

그 녀석이 **혹**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잘 된다고 해도... 나는 축복해 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아직 승부는 끝난 게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너희가 나아갈 길을 지켜보겠어. 만약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간 내가 그 녀석을 빼앗아 갈 테니까 분명히 알아 뒀.

뭐야, 유난스럽게. 그치만 난 후회 안 해.

## 7. 비판

그래서 좋아하게 됐다니 너무 뻔뻔한거 아니야?

- 나카노 이치카<sup>[44]</sup>

니노의 평가는 애니메이션 2기 이후 반전되었는데 그 이유에는 초창기에 보여주던 '니노'라는 캐릭터 특성이 **처음에 적대하다**가 나중에 **호의를 보이는 전형적인 성격클리셰**로 애초에 니노의 성격은 **이치카**의 누님 클리셰처럼 **촌데레** 클리셰가 강했다.

### 7.1. 수면제

극초반과 그 후 좀 지난 뒤 다시 나온 수면제를 몰래 복용시킨 것.

이에 대해서 ⇨ **공식 사이트의 니노 해설**에서는 자매에 대한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설명하였다.

### 7.2. 7개의 작별 에피소드

후타로가 다섯 쌍둥이를 위해 수필로 작성한 문제지를 자기가 화났다고 바닥에 내팽거친 후 미쿠가 니노가 던진 문제지들을 주워 풀라고 건넸는데 이를 찢었다. 이런 니노의 태도에 이츠키가 직접 나서서 니노의 뺨을 때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뺨을 때린 이츠키에게 역으로 뺨을 때려 싸움을 더 심화시켰다. 이츠키는 후타로에 대한 미안함과 도를 넘은 니노의 태도 때문에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한 행동이지만, 니노는 그런 이츠키에게 엄마 흉내를 내지 말라며 역으로 화를 낸다.<sup>[45]</sup>

그렇게 후타로가 가고 이츠키와 잠시 화해한 듯 보였지만 얼마 안가 또다시 싸우게 되고, 싸울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가출한다. 그러던 중 미쿠와 같이 온 후타로가 설득해보려 하지만, 다섯 쌍둥이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둘을 내쫓으려고 한다. 그때 [킨타로](#)에게 준 부적을 후타로가 끼고 있는 것을 보자 빼앗고 둘다 쫓아낸다.

어째서 후타로에게 적대심을 품었는지, 또 왜 후타로를 좋아하게 되는지 이유와 감정이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행에 대한 감정 표현과 이유도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니노의 행동에 모순을 느낄 수 있다.<sup>[46]</sup>

다만 사과없이 넘어간 수면제와는 달리 문제지를 찢은 것에 대해 후타로에게 사과했으며, 자신이 찢은 문제지를 자기 손으로 다시 붙여서 모든 문제를 풀었다. 게다가 문제지를 찢으면서 갈등이 생겼던 이츠키와도 화해를 했다.

## 8. 인기

인기투표 수상 이력
[ 펼치기 · 접기 ]

니노라는 캐릭터 자체가 지나친 주인공 혐오와 갈등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중반부까진 **독보적**으로 안티가 많은 히로인이었다. [이츠키](#)도 작가의 편애 논란 때문에 많이 까였지만, 그래도 작중 행적엔 큰 문제가 없어 결국 제일 많이 까였던 건 니노였다. 후타로와 **대립**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다. 연재분으로는 약 44화 정도에, 단행본으로 치면 5권 분량으로, 히로인 하나하나의 캐릭터성이 중요한 **러브 코미디**에선 악재로 작용할만 하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치카는 74화 이후 빌런으로 각성해서 어그로를 끌어모으고, 미쿠가 거듭된 고백 실패로 인해 좀처럼 진도를 못 빼고 소심해진 답답한 모습만 보여주고, 요츠바는 과거 편에서 드러난 민폐적 행보와 설정오류, 이츠키는 앞뒤가 안 맞는 무리수 전개로 인해 이중인격 소리까지 듣게 되어 니노가 원탑으로 까이던 시기는 지나갔다.

특히 60화 고백 에피소드 이후로는 인기가 급상승하여 **인기 꼴등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리고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편애** 의혹이 있던 [이츠키](#)와 [미쿠](#)의 분량은 점차 사라져가고 어쩌다 얼굴만 몇번씩 비추는 공기 수준으로 분량이 줄어들었으며, 어느새 니노는 메인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되어 나가고 있었다. 물론 니노가 대립 기간이 길고 대쉬하는 시간이 적었다지만, 다른 히로인들의 분량을 삭제하다시피 연속된 니노 에피소드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한다.

여러 비판들이 있지만 히로인 중에서 가장 큰 캐릭터성 변화와 **전설의 LOVE VACATION** 공연을 보여 완결 시점에는 미쿠에 이은 **인기 2위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상태**다. 국가마다 인기 3,4위 히로인은 달라도 1위 미쿠, 2위 니노, 5위 이치카는 거의 고정된 상태이며 특히 2위인 니노와 3위 캐릭터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 덕분에 굿즈 판매량 및 완결 이후에 진행된 전세계의 각종 **모에 토너먼트**에서 미쿠와 함께 5등분의 신부를 먹여 살리고 있는 히로인이 되었다.

## 9.캐릭터송

1기 캐릭터송
アイツとキミ ~二度とない運命~ 그 녀석과 너~두번 다시 없을 운명~

アイツとキミ～二度とない運命～



가사 ▼

2기 캐릭터송

好きよ ~Two Hearts~

좋아해 ~Two Hearts~

가사 ▼

## 10. 기타

- 초기 설정에서는 [사이드 업 포니테일](#)이었다고 한다. 현재와 다르게 인상 자체가 순둥순둥하게 보였다. 특히나 초안과 단편본을 본다면 상당히 많이 다르다. 초안<sup>[47]</sup>과 단편본<sup>[48]</sup>에서는 순하고 귀여운 성격으로 묘사되는데, 정식 연재본에서

는 촌데레를 거쳐 **상당한** 메가데레로 변하는 캐릭터가 되었다. 여담으로 완결 이후의 시점을 다룬 **오하나**에서 사이드 업 포니테일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나온다.

- 요즘에는 보기힘들어진 **촌데레** 인물인데, 오히려 2010년대 촌데레는 아니고 **옛날식 촌데레**의 표본에 가깝다. 주인공에게 처음부터 호감도 없었고, 약물투하와 욕설과 유사폭력(...)까지 휘두르는 형태는 주로 옛날 만화에 많이 나오던 유형이다. 그래서인지 중반부에서 캐릭터성이 **메가데레**로 변했을 때 인기가 급상승했다.
- 다섯 쌍둥이 중에서 영어 성적이 가장 좋다는 설정이었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영어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애초에 다섯 쌍둥이들이 모두 낙제 위기생들인데다 니노는 대학교 대신 조리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 2017년 가을에 공식 트위터에서 실시한 인기투표에서는 481표로 5자매 중 꼴찌. 연재 1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공식 인기투표에서도 1003표로 5위였는데, 이 당시만해도 니노는 후타로가 키타로인걸 몰랐고 워낙 적대적인 태도로 후타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안티가 엄청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후타로=키타로에 대해 알게 된 이후 마음을 정리하면서 자매 중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때문에 안티에서 돌아선 팬이 생겼고 최근 화에서 폭주하는 이치카, 유리멘탈 미쿠, 과거 행적 때문에 까이는 요츠바, 작중 초기부터 편애로 까인데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sup>[49]</sup> 이츠키 등 다른 캐릭터들의 단점이 부각된 탓에 상대적으로 더 오르기도 했다.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져서 현재로선 나름 팬층을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100화 기념 에피소드 인기 투표에서 4,5위 에피소드가 니노로 뽑히며 초반부에 비해 상당히 팬덤을 불렀다는걸 증명했다.<sup>[50]</sup>
- 여성팬이 제일 많다. **수줍은 메가데레**가 남성들에게 압도적이라면 니노는 여성들에게 압도적. 후타로에게 폭력적인 부분만 빼면 여성들에게도 공감가는 성격이기도 하고, 예쁘게 치장한 악세사리와 스타일링등도 매력으로 꼽힌다. 다만 히로인 팬덤 내에서의 여성팬 비율은 이치카가 훨씬 높다. 이치카는 팬덤의 규모가 작는데다 니노는 남성팬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
- 원래 니노가 외모에 신경쓰는 캐릭터긴 하지만 인기투표에서 항상 꼴찌를 하고 비판도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니노의 복장이나 외모에 작가가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이다. 특히 머리를 자르고 나서는 캐릭터가 전과는 확실하게 비교될 정도로 예쁘게 그려진다. 웃긴건 정작 니노 본인은 머리를 자른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설정이 있다(7권 인물 소개). 한편 작가 하루바 네기는 ⇨ **2019년 1월 23일 인터뷰**에서 니노의 긴 머리를 그리는게 힘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 이런 노력 끝에, 완결 이후 외부 **모에 토너먼트** 및 인기투표에서는 **5등분 히로인 중 2위를** ⇨ **커리어로 거의 확실하게 굳혔다**. 한국의 **애캐토**에서는 1차 예선 때마다 언제나 미쿠 다음의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초기에 비해 많이 줄어든 편. 니노가 본격적으로 외부 **인기투표**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한 건, **5등분** 진영 전체가 세계적인 고점에 올라선 완결 직후 시점인 2020년 후반.
- **애니메이션 1기**에서는 **언니**와 함께 **작화 붕괴**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이치카는 본인이 중심으로 나오는 11화에서 샤프트 출신 작화진들 덕분에 역대급으로 예쁘게 나와 상황이 나은 편. 그런데 마지막화인 12화는 다시 원래의 저질 작화로 퇴보하여 결국 니노만 애니판 1기 최고의 피해자가 됐다. 그래도 2기가 방영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됐다. 2기의 작화퀄리티가 상승하면서 가장 수혜를 본 캐릭터가 되었다. 2기 초중반부에 니노의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초중반부의 작화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1기에서의 작붕피해를 많이 회복했다. 작화에 대한 비판이 많은 오하나에서는 니노 만큼은 예외적으로 패션도 가장 화려하고 헤어스타일도 수시로 바뀌는 등 수혜를 많이 받았다.
- 2020년 2월경부터 위의 '어록' 항목에 있는 **"그게 나야, 유감스럽게도"** 부분의 컷이 한국 트위터에서 밈으로 소비되고 있다.
- 특유의 이미지와 대사, 성우의 목소리와 연기력이 합쳐져서 여왕님 포지션으로 나오려는 경향이 강하다.<sup>[51]</sup>
- 후반부에 상당한 임팩트를 남기고 인기가 올라간 만큼 팬덤에서 2차 창작도 미쿠 다음으로 많다. 그리고 ⇨ **모 팬만화**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니노를 **진 히로인**으로 2차 창작시켰다. (⇨ **전편(영어)**)



- [↻ 상단의 팬만화를 더빙한 영상](#)으로 니노와 후타로가 이어진 영상이 존재한다. 만화 자체는 영어지만 더빙은 일어로 되어있다.<sup>[52]</sup> 일어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애니를 많이 본 사람이면 대부분 알아들을수 있다.

[1] 17세 → 18세

[2] (5반)<sup>2학년</sup> → (1반)<sup>3학년</sup>

[3] 단, 캐릭터송 한정으로 [아타시](#).

[4] 애니메이션 방영 이전 만화책 CM에서는 [사쿠라 아야네](#)

[5] 다만 검은색이 무채색이라서 보조색으로 보라색과 분홍색을 쓴다. 정확히는 머리를 자르기 전은 보라색, 머리를 자른 후는 분홍색을 쓴다.

[6]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편이다.

[7] 그런데 이 취향이 작중, 처음으로 취향과 호감을 아낌없이 드러낸 임간학교 편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 변장한 후타로를 킨타로로 착각하고 그대로 사랑에 빠져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킨타로](#)의 말에 와일드하고 멋있다고 호감도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에게는 백마 탄 왕자보다 불량 청소년이나 금태양같은 사람이 취향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것. 본인이 나중에 밝히고서야 니노의 이상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8] 빨간 뿔테 안경을 쓰는 이츠키도 낮지만, 정작 니노는 [눈앞의 후타로](#)를 [미쿠](#)로 착각할 정도로 매우 나쁘다.

[9] 그래서 초반 후타로와의 관계는 5명 중에서 최악일 정도로 후타로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다.

[10] 이치카는 유일하게 본인보다 연상이고 혼자서도 잘 해나가는 성격이라 딱히 걱정하는 묘사는 없고, 요츠바는 자신의 속내를 거의 말하지 않는데다가 이치카쪽에서 챙기기 때문에 다른 둘보다는 접점이 적다.

[11]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신경쓰는 미쿠와 이츠키와 모두 한 번 이상 싸운 적이 있다. 이츠키와는 니노가 후타로에게 무례하게 군 건으로 싸대기가 오가다가 급기야는 둘 다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고, 미쿠와는 말할 것도 없는 건원기간이다.

[12] 여담이지만 [이때의 니노는 침을 흘린채 자고있었다](#).

[13] 그리고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이런 취향이 [외모지상주의](#)적인 면모와 겹쳐 버렸다. 흑발의 가정교사 [후타로](#)와 금발의 처음 본 [킨타로](#)을 헛갈려 한 건 둘째쳐도, 자신을 구해준 킨타로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것에 비해, 후타로에게는 후반부가 되어서야 우호적이게 대하였다.

[14] 여담이지만 그렇게 미각이 둔해서 돌인지 음식인지 헛갈리는 미쿠가 만든 크로켓을 먹다가 배탈이나 드러눕기 까지 했다...

[[스포주의](#)]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당시 독단적으로 5자매들 끼리 이사를 한 직후라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며 생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요츠바가 '니노는 요리 관련 일을 할꺼지?' 라고 하자 니노가 그럴거라고 하자 '니노는 자기 가게를 차리는게 꿈이었으니까' 라고 하고 후타로가 '전혀 몰랐다' 하자 '그냥 어릴때 장난으로 한 말이니 진심으로 받아드리지 말라'며 부정한다.

[16] 니노는 미쿠의 얼굴을 담백하다고 하고, 미쿠는 니노의 얼굴을 날카롭다고 설명했다.

[17] 대표적으로 55화에서 니노가 미쿠의 초콜릿을 먹고 감상평을 말했는데 이때 미쿠가 울먹거리자 진심으로 당황하여 횡설수설한다.

[18] 5권 보너스 만화에서 본 그림이 실려있다.

[19] 그부분은 이치카, 미쿠, 요츠바가 이미 후타로의 과외를 배우는 쪽을 선택해 후타로쪽으로 붙었기 때문이다. (니노 외에 후타로 편에 안 붙은 자매는 이츠키가 유일했다.)

[20] 이츠키 역시 처음에는 후타로에게 좋은 감정은 없는 편이었기에 니노 입장에서는 공동의 적을 두고 나름 신뢰했을 것이다. 그런 이츠키가 자신에게 손찌검까지 해 가며 후타로의 편을 드니 격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21] 후타로를 싫어하던 이츠키가 화해하고서 암전히 과외를 받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묘사, 어차피 안될 거라며 공부를 포기했던 이치카와 미쿠가 외국인 미아와 대화를 하는 것을 아연하게 보는 묘사가 있다.

[22] 후술하겠지만 이는 영락없는 **범죄행위**다.

[23] 4800엔, 한화로는 거의 **신사임당 한분** 수준이다. 다행히 택시에 동행하고 있던 이츠키가 대신 카드로 택시비를 지불했다.

[24] 요츠바는 특유의 도와주는 성격을 이용하여 농구부로 보내버리고, 이츠키는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라며 도서관으로 보내버렸다. 그와중에 이치카는 아르바이트를 보냈다. 남은건 미쿠와 후타로, 그리고 니노 뿐

[25] 저번에 미쿠가 실수로 니노의 음료수를 마신 것을 꼬투리로 내보내어 했지만, 미쿠는 이미 사온 뒤였다. 그런데 그 주스가 말차 소다..

[26] 후타로는 가지러 올 게 있어서라고 변명했지만 찍으러 오다(撮りに た)와 가지러 오다(取りに た)는 발음이 같다.

[27] 인파 속에서 헤매며 처음에는 자매들의 이름을 부르다 잠깐 침묵한 후 후타로를 부르려 했다. 또한 같은 화에서 **라이하**가 후타로의 소매를 붙잡고 따라가는 걸 니노가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 있다. 니노가 후타로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28] 특히 미쿠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을 것이다.

[29] 그냥 지금의 후타로와 연결지은 것일 수도 있다. 본인이니 당연히 닮았으니까.

[30] 후타로가 사진 속 소년이 자기라고 밝히기 싫어서 친척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31] 사실 이치카로 몰래 변장해있던 이츠키.

[32] 돌려준다는 말때문에 니노가 눈치챈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황상 부적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부적을 후타로에게 줌)->(후타로가 키타로에게 다시 돌려줄것임)

[33] 저번에 같이 행동했던 야간과는 다르게 얼굴이 잘보였고, 딱히 쌍둥이도 아닌지라 변장하면 금방 들킨다고 니노가 설명했다.

[34] 다르게 성장했지만 결국 한 자매였던 나카노 자매, 그리고 같은 사람인데 자신이 다르게 대한 후타로와 키타로 양쪽을 은유하는 소재다.

[35] **스즈미야 하루히나 쿠로사와 루비**랑 닮았다는 평가가 많다.

[36] 마음속에서부터 수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론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착잡한 표정.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며,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초반의 후타로에 비하면 굉장히 공평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옳은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평가도 내린다.

[37] 새로운 집은 후타로와 좀 더 함께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이고, 조금이나마 전진한 것 같다는 말은 후타로와 함께라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기분이라는 것이다.

[38] 순간적으로 오토바이를 탄 후타로의 모습이 니노가 생각하는 백마탄 왕자님과 겹치지만, 헬멧을 벗고 후타로의 썩은 눈을 보자 환상이 산산조각난다. 역시 후타로는 니노의 이상형인 '멋있는 남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

[39] 특히나 이번화를 계기로 평소 독자들에게 가까이만 했던 니노의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가게 된다**.

[40] 약속 장소를 맹세의 종으로 잡아뒀었다. 아예 작정하고 고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1] 그러나 이는 사실... **항목참조바람**

[42] 그 와중에 수영장엔 문신을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문을 보고 미쿠에게 걱정당했다. 바로 문신 안 했다고 반박했지만 자매들도 니노는 남친 이름이라도 새겨놔을 거 같다고 말하며 집중포화를 당한다(...). 그런데 자매들이 떠올린 남친 문신이라는게 **바람 풍자**다.

[43] 비록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지만, 그래도 후타로를 사랑하면서 얻은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의미.

[44] 다만 해당 발언은 후타로에 대한 마음을 양보하기 싫었던 이치카가 견제 및 라이벌 제거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최대한 부정적으로 내뱉은 말이다 보니 좀 애매한 점도 있다.

[45] 어머니 레나 사후, 레나를 흉내내는 이츠키와 가장 가까이 지낸 자매의 입장에서 저런 말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이츠키에게 화를 낼 때에도 여전히 후타로 편만 들어주는 자매들에게 역으로 화를 낸다. 다만 이츠키는 엄마의 말투와 행동을 흉내만 내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엄마의 역할은 니노가 하고 있었다.

[46] 이 모습은 동생인 미쿠와 많이 대조되는 모습이다. 작중 많은 부분에서 감정과 생각을 꾸준히 드러내서 아무리 **답답한 행동**을 했어도 이해할 수 있는 판이 깔린 미쿠와 달리, 감정과 생각, 행동, 그리고 이들에 따른 이유가 정확히 드러내지 않은 니노는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다.

[47] 해당 삽화에는 긴 **트윈테일**에다 소악마처럼 웃고 있었다. 그리고 큰 토끼인형을 들고 있었다.

[48] 정식 연재본과 비슷했지만 무늬없는 레이스 머리끈과 수줍음이 많게 그려졌다.

[49] 한 예로 수학여행 중에 승부속옷을 들고 다닌 것.

[50] 참고로 1,3위는 부동의 인기 1위 미쿠였고, 2,6위는 요츠바의 에피소드였다. 니노가 이치카-이츠키를 넘어서 요츠바와 함께 2위권 경쟁을 할 정도로 인기가 올라온것.

[51] 이런 이미지와 함께 니노의 촌데레력과 이치카의 누님의 모습과 합쳐져서 함께 '여왕님','**SM** 플레이어'라는 별명을 얻었다.

[52] 아마추어지만 실제 애니판 성우 목소리와 매우 흡사하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5등분의 신부** 문서의  r206 판,  4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